

민주회의
나침반이 되주는
『희망세상』

“송두울 씨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면 책임지실 겁니까?”

무서우리만치 질문을 쏘아 붙이는 젊은 야당 의원. 그 앞에서 대답을 토해내려 애쓰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인이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노인의 검버섯 핀 얼굴 아래로 그가 누군지 알리는 자막이 흘러나왔는데, 그때 난 처음으로 박형규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뉴스에서 송두울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3개월 후 『희망세상』을 통해 나는 박형규 목사를 제대로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조금은 놀랐다. 수차례에 걸친 투옥과 감금, 살해위협 끝내는 활동 공간인 교회를 빼앗겨 6년 동안 경찰서 앞에서 노상예배를 드렸던 인물이라니. 국정 감사장에서 구부정하게 서있던 모습과 순간 오버 랩 되면서 그간 담아두었던 씩씩한 기분을 조금은 도려낼 수 있었다.

『희망세상』에서 즐겨보는 코너는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번 호 서울 제일교회 사건처럼 전혀 몰랐던 사실이나 7월호 구로동맹파업 같이 어설피게 알고 있던 것들을 현장감 실린 목소리로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더욱 값진 것은 이를 계기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한다는 것인데, 특히 사건 속에 거론된 인

물들의 활약상이 큰 자극이 된다. 엄혹한 시대를 헤쳐 나가는 힘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그것을 지탱해주는 정신력이 무엇인지가 주된 호기심인데 정답은 주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와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나에서 찾는다.

어두운 곳에서 함께 또는 다르게 민주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던 그들이 나름의 삶을 보내는 모습과 비교해 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관되고 올바른 것인지 짧게나마 고민한다. 변해 버린 세월의 너비만큼 입장이 변해 이제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돼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한때 같은 노동자 모임에서 활동하던 3인이 모두 국회에 입성했지만, 속한 정당은 제각각인 것을 보고 묘한 기분에 빠진 적도 있다.

솔직히 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자신 있게 알지 못 한다.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사회에서 인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민주화라고 막연하게 그려놓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본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희망세상』은 나에게 참고서이자 나침반, 그 이상이다.

당장 9월호 26쪽을 보라, 홈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기념 검토 세미나 자료가 있다고 클릭 하라지 않나!

양인애(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7 팩 스 : 02-3709-7530 이 메 일 : hjo@kdemo.or.kr